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3월 3일(주일) 제1235호



사진은 지난해 차세대 교사부흥집회.

차세대 교사부흥집회 ‘타협의 거센바람’

3월 6일, 13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박상진 교수, 이재만 선교사 주제 강의

다음세대를 위하여 교사와 부모가
뜨겁게 부르짖는 차세대 교사부흥집
회가 3월 6일과 13일 ‘타협의 거센바
람’을 주제로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차세대 교사부흥집회는 다음세대
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
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살

아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자리
다.

이번 차세대 교사부흥집회는 파워
스테이션(차세대 찬양팀)의 찬양,
차세대 교사의 간증, 주제 강의, 합
심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3월
6일에는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가 ‘기독교 학부모, 기독교

사’를, 3월 13일에는 이재만 선교사
(창조과학선교회 대표)가 ‘타협의
거센바람’을 주제로 강의한다.

박상진 교수는 임시문제와 사교육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과 학생들
을 돕고 있는 기독교 교육 전문가
다. 2006년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를 설립하고 소장을 역임하고 있

다. ‘임시사교육바로세우기기독교
운동’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박 교
수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이번 교
사부흥집회를 통해서 세상의 교육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교육방식으
로 아이들을 양육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만 선교사는 미국 그랜드캐니
언을 중심으로 창조과학탐사를 19
년 동안 진행해온 과학자다. 강원대
학교 지질학 석사, 미국 창조과학연
구소 과학교육학 석사, 미국 그랜드

래피즈 신학대학원 구약학 석사학
위를 받았다. 미시간 코너스톤 기독교
대학에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지질학을 강의했고, 온누리교회에
서 창조과학 관련 강의를 꾸준히 이
어오고 있다.

한편 3월 21일 ‘차세대 자녀를 위
한 목요어머니 기도회’가 개강한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4층 누리홀에서
진행된다.

/ 권한송 기자 kcs123@onnuri.org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나타내는 순장”

순장영성수련회 ... 신임 순장 및 다락방장 580명 임명

지난 1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에서 열린 ‘2019 순장영성수련회’
에 온누리교회 리더십(순장, 다락방
장, 총무, 장로) 2천 명이 참석해 순
장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순장의
역할과 영성을 공유했다. 또한 신임
순장 및 다락방장 580명이 새 리더
십으로 임명됐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예수님
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순장들을 통해 순, 공동체, 교회에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격려했다.

공승천 순장(김포공동체)은 “하나
님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원들을 잘 섬기겠다”고 했고, 임선
영 순장(브릿지33+공동체)은 “마라톤
같은 인생을 같이 달리는 순장이 되
겠다”고 다짐했다. / 정현주 기자

2019 회복축제 ‘관계의 기쁨’

4월 3~5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2019 회복축제가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및 부속실에서 막 오른다. ‘관계의
기쁨’을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5시
까지 진행된다. 주강사는 박성심 사
모(심리치료사), 채규만 교수(중독치
료전문가), 박성덕 소장(연리지부부
가족연구소), 박재연 소장(리플러스
인간연구소), 이기원 목사(회복사역
본부장)이다.

선택강의도 풍성하다. 이관직 교
수, 이지선 교수, 남윤영 박사, 조병
민 목사 등이 강의한다.

2019 회복축제 참가신청은 다음
주일(10일)부터 교회 로비에 설치되
는 접수데스크와 홈페이지에서 하
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3월 24일까
지 사전등록하거나 10인 이상 단체
등록하면 회비 1만 원을 할인해준
다. 문의: 02-3215-3355, 3532

3월 17일 대중교통 이용 주일

3월 17일(주일)은 대중교통을 이
용하는 주일이다. 이날은 자가용은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
회에 와야 한다. 이촌역과 서빙고
온누리교회, 양재역과 양재 온누리
교회를 오가는 셔틀이 운행된다. 교
회 주차장은 사전에 주차스티커를
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장애
인, 70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36개
월 이하 자녀동반, 자녀 3명 이상, 쉼
로 연주자 등이 그 대상이다.



책 읽어주는 목사

사도신경을 통해 깊어지는 믿음

〈칼 바르트 교의학 개요〉



〈칼 바르트 교의학 개요〉

칼 바르트 저 | 복있는사람 | 13,000원

기독교의 본질은 ‘믿음’에 담겨 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신경이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믿음이 무엇인지를 담았다. 사도신경에 담긴 기독교 믿음을 조직신학적으로 풀어낸 책이 〈칼

바르트 교의학 개요〉다.

이 책은 칼 바르트가 1946년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독일의 본(Bonn) 대학교에서 강의한 내용을 엮은 책으로 사도신경의 실마리를 따라가며 기독교 신학의 근본 질문들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망을 제공하며, 사도신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곱씹으면서 기독교 신앙의 주춧돌이 되는 중요한 교의학적 개념들을 체계적이면서도 친절히 설명해 준다.

사도신경은 크게 3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바르트는 이 조항들로부터 ‘나는 믿는다’를 말하기 시작한다. 라틴어로는 ‘크레도 인(credo in)’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가, 내가 믿는 그것을 말하는가? 믿는 주체인 ‘나’를 말하는가, 믿는 대상인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가? 바르트에게 있어서 이 구별은 매우 중요하다. 이 구별이 강의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바르트는 믿는 주체가 아니라 믿는 대상인 성부, 성자, 성령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사도신경은 믿음의 대상을 설명하며, 우리의 주관적 믿음은 그 대상에 의해 살아갈 뿐이다. 신앙고백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첫 단어 외에는 믿음의 주관적 사실에 대해 전적으로 침묵한다. 나의 관심사는 믿음을 가진 나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분이다.”

바르트에게 있어서 사도신경의 중심은 ‘삼위 하나님’임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이것은 바르트 신학의 핵심인 ‘계시(Offenbarung)’와 ‘계시됨(Offenbarsein)’의 틀을 일관되게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삼위 하나님은 고유하게 존재하심으로써, 그 자신을 나에게 열어 보여주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파괴 속에서도 파괴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계시는 만남이며, 선물이며, 나는 더 이상 혼자자 아님을 의미한다.

바르트는 사도신경의 중심인 제 2조항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음’, ‘죽음’, ‘장사됨’에 큰 의문을 던진다.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장사될 수 있는가? 그의 대답은 이렇다. 이 고난, 죽음, 장사됨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인간의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에 서심으로써 인간을 일으키신 하나님

의 정의다. 하나님의 정의는 자신을 낮추심으로 인간을 높이시고, 자신을 버리심으로 인간을 취하시며, 자신을 죽이심으로 인간을 살리신 하나님의 실제적 행위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들을 바르트와 함께 따라가다 보면, 독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만날 수 있다. 좋은 책은 그 책을 쓴 저자가 보이지 않고, 그 저자를 사로잡은 세계가 보이는 법이다. 그 세계는 저자 자신보다 언제나 더 넓고 깊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저자를 사로잡은 하나님을 보이게 하며, 저자를 통해 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 또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하여 깊은 위로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인생의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 해답을 통해 얻는 위로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안다. 이 책은 독자에게 깊은 위로를 맛보게 할 것이다.



한화수 목사
(동작공동체)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저는 불교신자입니다”

답: “아! 그러시군요. 불교를 믿는 분들은 정직하고 좋은 일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생은 한 마디로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다 고통이라고 하지요. 부처님도 인생은 고통과 괴로움의 덩어리이고, 모든 것은 덧없으니 정진하여 해탈 하라고 말씀하셨는지요?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이러한 경지에 이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인류의 스승이시지만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결실이지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전도대상자가 불교신자일 때 반응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대화를 거부하는 강경파다. 전도를 하다보면 “불교 믿어요?”라며 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 ‘돌로 만든 것에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논쟁은 금물이다. 먼저 그들의 방생이나 보시 등 선한 행위에 대한 칭찬으로 다가가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서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고통에 대한 부분을 만져주면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두 번째, 일편단심 순정파다. 무엇이든 진실하게 믿으면 된다면 오래 섬긴 부처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분도 계신다. 일편단심 어르신들의 마음이 정말 귀하다고 칭찬해주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좋다.

“우리가 살다가 위기를 당했을 때 종교에 상관없이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본능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무관심하다면 부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닐

까요?”

그러면서 종교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드리겠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대개 받아들인다.

셋째, 불교문화에 관심이 있는 호기심파다. 믿는 종교가 불교는 아니지만 불교적 수양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 잡기가 어려운 만큼 명상에 관심과 호기심이 많다. 불교문화 체험을 통해 참된 자아를 발견하려 한다. 그때 “참된 나를 발견하려면 수행이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나의 정체성이 생긴다”라며 복음을 전해보자.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전할 때 성령님이 하신다.

휴가철만 되면 산사를 다니면서 설법도 듣고 교리에 심취한 50대 지인이 암에 걸렸다. 부처님 교훈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병이 죄의 업보 때문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솔직히 힘이 든다고 했다.

“죄의 업보 때문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

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기독교와 불교는 생명이 있고 없는 것의 차이인 것을 이제 알았다면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상황에 따라 복음과 연결하는 접촉점을 만들면 유익하다. 그러나 정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진정성이다. 사랑과 진정성이 전달될 때 복음은 능력이 된다.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전도여왕의 전도 레시피〉 저자)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두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자 역사요, 분명한 지식입니다. 객관적 진리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지만 기도를 통한 개인적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식과 정보에 불과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대하게 만드는 교만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 없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더 큰 교만이고, 큰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언제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에 나타난 진리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채널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인간의 자유의지를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거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능동적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가장 능동적인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동역자로 초청하십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점점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요, 파트너가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헬라어에는 다른 언어에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문법이 있습니다. ‘중간태’입니다. 능동태도, 수동태도 아닌 중간태는 다른 이에 의해 시작되거나 결정된 뜻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중간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없이 스스로 결정하는 능동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중간태입니다.

중간에 서 있는 사람 ‘모세’

모세는 구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가장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지도자이기 전에 기도자였습니다. 모세가 나오는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인간적인

리더십 원리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기도가 아니었다면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 수 없었습니다. 기도가 아니었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다른 별명을 붙인다면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보호 받기 위해 갈대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던져졌고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의 태생은 히브리인이지만 유년 시절에는 애굽인으로 자랐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 자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인지 애굽인인지 중간에 서서 갈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모세는 삶의 중간에 서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과 백성들 중간에 서서 중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위해 기도하지만 기도가 깊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모두 중보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또 다른 영혼,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민족,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내가 아는 많은 사람, 하나님과 가정, 하나님과 내가 맡은 사명 등을 기도하게 됩니다. 중간에 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우상숭배와 모세의 기도

오늘 본문은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고,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 40일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직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내 산에 올라간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다급했고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하면 무언가를 찾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불안하면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씁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지 않을 때 불안하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자 속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찾았습니다. 아론에게 요청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며 탄핵하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한 명령을 그토록 빨리 저버리고 스스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우상을 부어 만들고는 경배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했다”(출 32:8).

모세의 기도

출 32:9~14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가 우리를 통해 드러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희망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건이 있지만 가장 끔찍한 사건은 인간이 만든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을 반드시 경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백성들과의 관계를 끊고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9~10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쁜 소식이지만 모세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 사탄이 틈틈이 모세에게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모세야, 지금이 기회다. 그동안 백성들 때문에 고생 많았지? 이제 너는 아브라함보다 훌륭한 민족의 시조가 되는 거야. 얼마나 좋니? 네가 먼저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하셨으니 너는 그저 ‘네’라고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진멸 받아 마땅한 백성들을 진멸하시는 것은 의로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에 누가 감히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한번 상상에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께는 잘 순종하지 않는데,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께는 순종을 잘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훌륭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이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십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11~13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대상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달라고 기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질투했을 때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마라에 이르러 물이 너무 쓰다고 맛이 없다며 물맛까지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을 때 모세가 용서를 구해 백성들이 살아났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달라고 여러 차례 기도했지만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모든 민족이 진멸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진노를 거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율법을 받았던 사람이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엄정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의로우신 분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진멸되어야 마땅하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희망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진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원리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거둬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긍휼을

첫째, 모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판단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세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도리어 자신이 죽고 민족을 살리는 심정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오, 이 백성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버리십시오’”(31~32절).

(13면에 계속)

천국을 선물하는 목수들

대전 온누리교회 '살롬하우스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또 있을까? 여기 자신의 달란트를 기부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이들이 있다. 대전 온누리교회 '살롬하우스팀(이하 살롬하우스팀)'이 그 주인공이다.

살롬하우스팀은 '천국을 선물하는 목수들'이라고 불린다. 설계, 인테리어, 배관, 용접, 몰딩, 전기공사, 목공 기술자들로 구성된 선교팀이다. 농어촌미자립교회, 보육원, 쪽방촌 주민들을 찾아가 노후 된 시설을 무상으로 보수해주고 있다. 그 섬김과 헌신이 얼마나 눈물겹던지 가는 곳마다 칭찬을 듬뿍 받고 있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는 대전 온누리교회 살롬하우스팀.

이른 아침부터 경쾌한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살롬하우스팀이 노후 된 농어촌미자립교회 시설보수를 하고 있는 소리다. 연장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낡고 고장 났던 공간이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탈바꿈했다. 새 소망과 큰 기쁨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천국이 따로 없었다.

살롬하우스팀은 도움이 필요한 농어촌미자립교회, 보육원, 쪽방촌 주민들의 집을 무료로 고쳐주고 있다. 배관작업, 용접, 전기설비, 인테리어 등 해주는 공사가 다양하다.

날개 없는 천사들

충청남도 논산에 있는 충곡교회도 살롬하우스팀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 충곡교회 천장에 있던 단열재가 떨어지는 바람에 성도들이 한 겨울에 추위와 씨름하며 예배를 드려야 했다. 당장 단열재 보수공사를 하고 싶었지만 비용이 비싸서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충곡교회는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교회이고, 성도 대부분이 75세 이상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여력이 없는 것이 당연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은 살롬하우스팀이 충곡교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다. 양실희 목사(충곡교회 담임)는 지금도 그 고마움을 결코 잊지 못하고 있다.

“교회 천장에 있던 단열재가 떨어지는 바람에 한 겨울에 성도님들이 벌벌 떨면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 교회 지붕이 석

면으로 되어 있어서 예배드릴 때마다 석면가루가 많이 날렸고요. 대전 온누리교회 살롬하우스팀이 저희의 어려운 사정을 어떻게 알고 찾아오셔서 단열재를 새로 달아주셨습니다. 지붕에 있던 석면도 교체해주셨고요. 지금은 석면가루 날리지 않는 예배당에서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으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살롬하우스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전에 있는 하나인교회도 살롬하우스팀이 보여준 큰 사랑에 감동을 받았다. 하나인교회는 건물이 오래되어서 보수해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어쩌나 낡았던 지 재정 상태가 넉넉하지 못해도 공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비와 재료값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저렴한 재료를 구해서 사용했고, 웬만한 작업은 김용부 목사(하나인교회 담임) 스스로 했다. 그렇게 아꼈는데도 인테리어 마감작업을 하면서 재정적인 한계에 봉착했다. 김용부 목사는 백방을 다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았지만 허사였다. 그때 한줄기 빛처럼 살롬하우스팀이 찾아와 하나인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해 줬다. 김용부 목사는 살롬하우스팀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들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그때 살롬하우스팀이 찾아오셔서 페인트 칠부터 공사 마무리까지 모두 해주셨어요. 커튼도 달아주셨고요. 하나인교회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필요한 것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꼭 필요한 도움을 주셨

습니다. 살롬하우스팀은 정말 하나님이 하나인교회에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들입니다.”

살롬하우스팀은 농어촌교회뿐만 아니라 보육원, 쪽방촌 주민들에게도 무료 공사를 해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대전 성우보육원은 전기선 정돈이 되지 않아서 안전에 문제가 있었다. 외부업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전기선이 건물 내부에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공사가 쉽지가 않았다. 공사비용도 성우보육원에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때 살롬하우스팀이 찾아왔다. 성우보육원 직원 최병관 씨는 살롬하우스팀의 눈물겨운 섬김에 한없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살롬하우스팀이 성우보육원 전기설비작업을 해주셨어요. 전기선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 보면서 깨끗하게 정리해주셨습니다. 성우보육원 체육관에 있는 환풍기도 교체해주셨고요.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정말 많이 써주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달라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고요. 살롬하우스팀의 아름다운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롬하우스팀은 이외에도 대전 예수교회, 공주 물대동산교회, 보은 회남교회, 대전 밀알복지관 등지를 찾아가 어려운 이웃들을 섬겼다.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앞장서서 섬기고 있다. 살롬하우스팀의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 덕분에 이웃들이 웃음을 되찾고 있다.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이유

살롬하우스팀의 모태는 이정우 성도(대전 온누리교회)다. 이정우 성도는 오래 전부터 쪽방촌 주민들의 집을 방문해서 전구를 갈아주고 깨진 창틀을 교체해줬다. 장애인 복지관에도 정기적으로 찾아가 시설보수를 해주고 있다. 이정우 성도의 아름다운 섬김은 도움을 받은 이웃들은 물론이고 동역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이정우 성도와 동역하고 싶다는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종서 성도(대전 온누리교회)도 그 중 한 사람이다.

“이정우 성도님과 저는 같은 순입니다. 이정우 성도님께서 시간을 날 때마다 도움

이 필요한 이웃들의 집을 방문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대전 온누리교회에도 고장 난 물건이나 시설물이 있으면 이정우 성도님이 먼저 나서서 고쳐주시고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정우 성도가 혼자 하던 사역이었는데 어느새 동역자 열두 명이 생겼다. 개인사역에서 팀사역으로 조금씩 성장했다. 그 결실이 2017년 2월 맺혔다. 살롬하우스팀이 정식으로 창단됐다.

김진훈 성도(대전 온누리교회)는 살롬하우스팀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됐다고 간증했다.

“전에는 구제현금하고, 봉사활동 조금 하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롬하우스팀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 실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살롬하우스팀에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다.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살롬하우스팀의 식구가 될 수 있다. 재능의 유무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선교이기 때문이다. 살롬하우스팀 팀장 박승영 집사(대전 온누리교회)는 동역할 천사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살롬하우스팀이 하고 있는 사역은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전문가가 작업할 때 옆에서 필요한 공구를 전해주거나 작업이 끝나고 주변을 정리정돈 해주는 일에 헌신해줄 천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름 아웃리치나 1다락방 1사역으로 동참해주셔도 좋습니다.”

살롬하우스팀의 사역은 대전 온누리교회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이웃들을 돕기에는 재정적인 한계가 있다. 살롬하우스팀이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많은 후원과 관심, 기도를 부탁한다.

후원계좌: 3333-053-251740

(카카오뱅크)

문의: 010-8434-4574

〈생명의 삶〉 200% 활용하기

성도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말씀 적용’ 방법

QT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또 이미 많은 성도가 QT를 하고 있다. 하지만 QT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QT사역팀과 〈생명의 삶〉 편집장 장덕은 목사에게 QT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부터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실제 방법에 이르기까지 QT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생명의 삶〉 200% 활용법을 알아보았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생명의 삶〉으로 소그룹 QT 모임을 하고 있는 QT사역팀원들.

우리는 왜 QT를 해야 할까?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QT를 통해 얻는 많은 유익과 열매가 있으나 이는 모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제대로 된 QT’에서 시작한다.

온누리교회 QT사역팀과 〈생명의 삶〉 장덕은牧사는 ‘제대로 된 QT’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과정이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QT의 꽃,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성도들은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 온누리교회 QT사역팀 김진자 권사(성북공동체)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가족의 식사를 잘 챙기는 것에서부터 말씀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황병원 장로(양천공동체)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말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호등 지키기처럼 삶 속에서 꼭 지켜야 할 작은 약속부터 지켜 나가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고백한 성도도 있었다. 이처럼 대다수 성도가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말씀을 적용하고 있었다. 〈생명의 삶〉 장덕은 목사도 이를 거듭 강조했다.

“가족, 직장, 공동체 등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일, 상황에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말씀을 적용하고 변화를 이룰 때 그 영향력이 멀리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적용 범위가 점점 넓어짐에 따라 은혜의 범위 역시 넓고 풍성해지며, 온전해집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올까? QT사역팀과 〈생명의 삶〉 장덕은 목사는 깊은 묵상에 그 해답이 있다고 말한다.

“QT를 삶에 적용하는 것은 ‘QT의 꽃’이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삶에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말씀 묵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삶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바벨수룩 해야 하는 ‘QT’

QT가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지 모르는 성도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내어 QT를 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QT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QT사역팀과 〈생명의 삶〉 장덕은 목사는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바벨수룩 해야 하는 게 QT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바쁘다고 QT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QT하는 것이 힘들다면 묵상에

이 하단에 있는 ‘한절묵상’을 활용하면 됩니다.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QT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바쁜 중에도 QT로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습관을 들이면, 삶에 질서가 잡혀 더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성경 본문만으로도 충분히 묵상이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면 〈생명의 삶〉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글들을 활용하면 된다. 초신자도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깊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글이다. QT사역팀도 이 글을 자주 활용하고 있었다.

김진자 권사는 “QT를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잘 모를 때 ‘한눈으로 보는 성경’과 ‘본문해설’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황병원 장로는 “본문과 어울리는 글이 적힌 ‘묵상에세이’를 활용한다”고 말했다. 제무성 집사(강촌공동체)는 “오늘의 말씀요약’이 묵상에 도움이 되어서 적극 활용하고 있고, ‘영여성경’도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들 모두 〈생명의 삶〉으로 QT하고 있지만, 각자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달랐다.

〈생명의 삶〉 편집팀이 제안하는 활용법

〈생명의 삶〉 편집팀이 제안하는 〈생명의 삶〉 200% 활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의 찬송’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집중한다. 둘째,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간단하게 드린다. 셋째, 본문을 세 번 정도 반복해서 천천히 읽는다. 처음 읽을 때는 전체 내용을 이해하며 읽고, 두 번째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며 읽는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읽는다. 넷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이어간다. 이때 반복해서 생각하며 깨달은 점을 기록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죄가 무엇인지,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내가 순종할 말씀은 무엇인지, 내가 따라야 할 본이 무엇인지 등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기록한다. 다섯째, 묵상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오늘 내 삶에서 실천할 말씀을 찾아 기록한다. 여섯째,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기도하고 QT를 마무리한다.

만약 〈생명의 삶〉 편집팀이 제안한 활용법을 따라 해도 묵상이 어렵다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일 수 있다. 그럴 때는 매월 해당하는 성경 본문을 1~2번 정도 정독할 것을 추천한다. QT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 스스로 묵상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만약 본문이 제대

로 이해되지 않을 때는 본문해설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 하지만 본문해설은 어디까지나 가이드 역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가능한 개인 묵상을 다 마치기까지 본문해설을 먼저 읽지 않는 것이 QT 훈련에 도움이 된다. 또한 묵상에세이, 한절묵상, 명언 등도 개인 묵상을 다 마친 후에 읽는 것이 좋다.

〈생명의 삶〉 편집팀은 보다 깊은 본문 이해를 위해 올해부터 ‘묵상을 돕는 배경 산책’과 ‘말씀이 열리는 난제 해설’ 코너를 추가했다. ‘배경 산책’은 본문과 연결되는 역사, 문화, 지리적 배경이나 성경 시대의 풍습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상단 우측에 있는 QR코드를 활용하면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에 수록된 배경 지도와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말씀이 열리는 난제 해설’은 그달 본문 가운데 어려운 구절을 쉽고 재미있게 해설해 주어 성경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해 준다.

개인 QT에 머물지 않고 소그룹으로 모여 ‘나눔과 중보기도’로 이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그룹 QT는 주중에 하루를 정해 소그룹(순, 셀, 구역 등)과 직장 신우회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주중 QT 본문 중에서 나눔하기 좋은 말씀을 골라 편집했기 때문에 소그룹 QT 나눔을 더욱 풍성하게 진행할 수 있다. 리더를 위한 지침서는 〈생명의 삶〉 홈페이지에 제공된다.

〈생명의 삶〉을 활용해서 가정예배도 드릴 수 있다. 주일에는 ‘주일 가족 QT 나눔’을 활용해서 가정예배를 드리면 된다. 제시된 예배 순서를 따라 진행하고 주어진 질문을 보면서 나눔과 가족 기도로 이어 가면 된다. 두란노서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QT지(〈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 좋아요〉, 〈새벽나다〉, 〈생명의 삶〉 등)가 같은 본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다.

더 깊고 건강한 QT 습관을 기르고 싶은 성도들은 두란노서원에서 주관하는 ‘Good morning~ God QT 베이직 세미나’에 참여하면 된다. QT사역팀에서도 4주 과정의 QT스쿨을 마련하고 있다. 아직 QT를 하고 있지 않거나 시작하고 싶은 성도들은 02-2078-3200으로 문의하면 〈생명의 삶〉 정기구독에 관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Good morning~ God QT 베이직 세미나

일시: 3월 11일, 18일 월요일 19:00~21:30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대상: QT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
회비: 4만 원 (3월 5일(화)까지 등록 및 입금 시 3만 원)
접수: www.duranno.com/seminar
문의: 02-2078-3252

QT스쿨

과정: 주일반(주일 오전 8:50~10:30), 수요일반(수요일 오후 1:30~3:00, 4주 과정)
장소: 주일반(CGNTV 홍보관), 수요일반(교회 홍보관)
신청: 아이스쿨에서 ‘큐티’로 검색하여 신청
문의: 02-3215-3533

비전헌금, 이렇게 쓰이고 있다

노숙인들이 예수님 만나는 공간!

영등포 광야교회가 운영 중인 ‘사닥다리방’

온누리교회는 매월 둘째 주일 비전헌금을 봉헌하고 있다. 비전헌금은 도움이 필요한 크리스천들과 교회, 단체들에 전달되어 그들이 오랫동안 꿈꿔오던 비전을 이루고 돕고 있다. 여기, 온누리교회가 전달해 준 비전헌금으로 ‘노숙인에게 꿈과 희망, 자립과 회복을 선물하겠다’는 비전을 이뤄가고 있는 교회가 있다. 영등포 광야교회가 그 주인공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사닥다리방에서 종이봉투를 접는 일을 하고 있는 노숙자들.

서울시 영등포역 인근에도 노숙인들이 정말 많다. 아침부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춥게 있는 이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 가닥 희망조차 발견하지 못해 낙심한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교회가 있다. 영등포 광야교회다. 영등포 광야교회는 노숙인들과 쪽방촌 주민들의 자활과 회복을 돕고 있다.

“그래도 영등포 노숙자들에게는 생기가 돈다”는 말이 있다. 모두 영등포 광야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쉼터, 상담소, 식사, 예배 덕분이다.

영등포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는 ‘노숙인들의 대부’로 불린다. 임 목사는 노숙인들의 자활과 회복의 핵심 키워드는 복음이라고 확신한다.

“복지 서비스는 누구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많은 종교단체에서 노숙인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단들도 노숙인들을 돕고 있고요. 그러나 크리스천의 사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노숙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돕는 것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영등포 광야교회에서는 노숙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매일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누리교회에서 전달해 준 비전헌금으로 노숙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공간 ‘광야의 사닥다리방(이하 사닥다리방)’을 오픈했습니다.”

기적의 공간 ‘사닥다리방’ (예수님께 향하는 사다리)

광야의 사닥다리방은 영등포 광야교회 인근

에 있는 지하 공간이다. 2012년 12월 24일 문을 열었다. 사닥다리는 ‘예수님께 향하는 사다리’라는 의미다. 저녁에는 노숙인들을 위한 숙소로, 낮에는 작업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날마다 노숙인 15~20명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온누리교회가 전달해 준 비전헌금으로 사닥다리방 보증금과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해결했다.

노숙인들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있다. 하루 종일 술에 취해 몸조차 가누지도 못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주사가 있어서 쉼터에서도 받아 주지 않는다. 오갈 곳이라고는 거리밖에 없는 진정한 노숙인들이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사닥다리방이다. 노숙인 쉼터에서조차 문전박대하는 알코올중독자들을 사닥다리방에서는 따뜻하게 품어준다. 매일 저녁이면 알코올중독 노숙인 15~20여 명이 찾아온다.

이승철(가명, 59세)씨는 사닥다리방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다. 우연히 영등포역에 왔다가 사닥다리방을 알게 되었다.

“5년 가까이 사닥다리방에서 지내고 있어요. 함께 지내는 노숙인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좋아요. 사닥다리방은 제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 계기가 되었어요. 수시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노숙인들과 영등포 광야교회 관계자들은 사닥다리방을 ‘기적 같은 공간’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가 있다. 노숙인들이 땀 흘려 일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노숙인들이 일을 한다는 것은 자활과 회복의 청신호다. 바로 그런 일들이 사닥다리방에서는 매일 벌어지고 있다.

사닥다리방에서는 노숙인 10여 명이 일하고 있다. 노숙인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작업을 주는데 주로 종이봉투를 접는 일을 한다. 매월 적게는 몇 만 원부터 많게는 이십여 만 원까지 수입을 얻고 있다. 이승철 씨도 종이봉투를 접고 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꾸준히 일을 하는 게 자활과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해야 하니까 매일 마시던 술을 많이 줄였어요. 일을 하니까 기분도 좋고요.”

작업반장 최진국(가명, 58세)씨에게도 사닥다리방은 아주 특별한 공간이다. 더 나은 삶을 향한 꿈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3년 전쯤 영등포역에서 드리는 저녁예배에 참석했다가 사닥다리방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영등포 광야교회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부지런하게 살려고 사닥다리방 작업반장 역할을 맡았어요. 노숙인들과 함께 종이봉투를 접으면서 매일 ‘새롭게 살자’고 다짐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최진국 씨는 사닥다리방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최 씨처럼 사닥다리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많다. 그들 모두가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자활과 회복이 가능한 이유는 영등포 광야교회 사닥다리방 덕분”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바로 그 사닥다리방이 문을 열수록 도와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도 무척 감사하고 있었다.

기자가 방문한 날에도 두 명의 노숙인이 사닥다리방을 찾아왔다. 한 명은 해안가에서 일을 하다 도망쳐 나와 노숙생활을 시작했다고 했고, 또 다른 한 명은 그동안 폐지를 모아 생활했는데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몸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는 이유로 받아 주는 곳이 없어서 방황하다 사닥다리방에 왔다고 했다. 노숙인들에게 사닥다리방이 마지막 희망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영등포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사닥다리방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오갈 곳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사닥다리방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닥다리방을 통해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노숙인들에게 믿음과 비전을

임 목사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영등포 광야교회를 잊지 말고 동역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사닥다리방에서도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보통 노숙인들이 사닥다리방에서 몸과 마음이 호전되면 다른 쉼터나 복지시설로 옮겨 자활을 돕고 있다. 그런데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노숙인들도 있다. 그들을 위한 장소가 바로 ‘달방’이다. 정서가 매우 불안정하거나 폐쇄공포증이 있는 노숙인들은 사닥다리방에서 지낼 수 없다. 그렇다고 그들을 다시 거리로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달방(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작은 방)에서 생활하게 한다. 지금 노숙인 7명이 달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영등포 광야교회가 노숙인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왜 이리 힘든 사역을 하느냐’고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영등포 광야교회는 빛을 내서라도 노숙인들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왜냐하면 노숙인들에게는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태가 아무리 좋지 않고, 열악해도 믿음과 비전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노숙인들을 섬기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비용과 인력이 아무리 많이 필요해도 이 사역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그들에게 남은 것은 낭떠러지밖에 없으니까요.”

영등포 광야교회는 노숙인들에게 믿음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다. 매일 노숙인 400명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린 다음 배식을 한다. 노숙인 자활시설에는 노숙인 60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다. 노숙인들이 자립을 준비하는 공간이다.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상담소도 운영하고 있다. 영등포 광야교회가 가장 정성을 드리는 것은 예배와 전도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영등포역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후에는 영등포 다리 밑에서 전도를 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탄생한 사닥다리방이 노숙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등포 광야교회의 비전에 동참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른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비전을 위해서도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말아주시지요.”

문의: 영등포 광야교회 02-2636-3373

Holy Spirit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

싱그러운 햇살이 가득했던 2007년 어느 여름날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책과 아이들이 좋아 국어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소년이 책을 소리 내어 읽을 수도, 아이들과 편하게 이야기 할 수도 없게 됐다. 친구들과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놀기 좋아하던 소년이 뛰기는커녕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됐다. 주변에 가득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더니 아무도 남지 않았다. 세상 속에 혼자가 된 소년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그 소년에게 값없는 사랑을 주셨다. 소년의 존재만으로도 사랑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사랑과 나눔을 배우며 자란 소년은 이제 그 사랑을 갚을 줄 아는 청년이 되었다. 양재 온누리교회 허브공동체 이재근 형제의 이야기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었다!

〈사랑 받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재근 형제

2007년,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월슨병’이 찾아왔다. 월슨병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간이나 뇌에 과다한 양의 구리가 축적되고 배출이 되지 않아 생기는 유전질환이다. 구리는 모든 음식과 음료에 들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잘 배출해낸다. 하지만 이재근 형제의 경우는 구리가 배출되지 못하고 뇌에 쌓이면서 장애가 생겼다. 이재근 형제는 월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도가 심한 편에 속한다.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도, 똑바로 걸을 수도,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다. 그래도 이재근 형제가 정말 잘 하는 것이 하나 있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일이다.

발병과 상처 그리고 회복

이재근 형제의 발병 전후 삶은 너무나 다르다. 잘 하는 것도 많고, 인기도 많았던 그의 삶이 발병하면서 송두리째 무너졌다.

“장애가 생긴 이후 너무 외롭고, 아프고, 괴로웠어요. 잘 하는 것이 많고, 주변에 사람도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된 것도 모자라 곁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혼자가 된 상황이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은 더 아팠다. 관계의 중심에서 있던 그가 홀로 남게 되었고, 외출조차 힘들어졌으니 오죽했을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이 점점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계속 피하게 됐고요. 어느 순간 혼자가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토록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이재근 형제가 지금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됐다. 더 이상 사람들 만나는 일이 두렵지 않다. 먼저 다가가 사랑을 전하기도 한다. 이재근 형제를 도와준 하나님의 사람들 덕분에이다.

이재근 형제에게 영향을 준 첫 번째 인물은 그 유명한 닉 부이치치(지체장애를 가진 오스트리아의 설교자이자 동기부여 연설가, 지체장애인을 위한 기관 ‘사지 없는 인생’의 대표)다. 이재근 형제가 미국 여행을 하던 중에 우연히 닉 부이치치의 강연을 듣게 됐다. 강연에서 “지금 모습 그대로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는 닉 부이치치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닉 부이치치가 ‘나는 지금 내 삶이 너무 좋

습니다. 삶을 다시 살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는 이 삶이 너무도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강연을 듣고 삶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자신의 삶 또한 닉 부이치치처럼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랬더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수월해졌다.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이재근 형제에게 영향을 준 또 다른 사람은 한 후원자다. 이재근 형제가 그 후원자에게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나요?”라고 물으면서 “저에게는 당신에게 받은 것을 갚을만한 능력이 없다”고 했더니 그 후원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은 나에게 갚을 필요가 없다. 나 또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갚없이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뿐이라. 사랑을 나누는 것은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괜찮다. 칭찬이나 위로, 격려와 같은 따뜻한 말 한 마디로도 사랑을 전하기에는 충분하단다. 너도 네가 받은 많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형, 주는 행복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재근 형제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다. 노숙자와 독거노인들에게 간식거리와 말씀카드를 포장해서 선물하는 일이 그의 일이다. 이웃들에게 나눠 줄 간식을 준비하고, 말씀카드와 함께 포장해서, 이웃들에게 나누는 과정까지 거동이 불편한 이재근 형제에게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재근 형제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도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노트북이 급하게 필요한 취업준비생부터 핸드폰을 잃어버려 발을 동동 구르던 학생까지 이재근 형제가 나눠주는 물품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아무리 나눠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했다.

“사실 저에게도 나누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받은 사랑이 크고 많기 때문에 나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꼭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라”



이웃을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싶다는 양재 온누리교회 허브공동체 이재근 청년.

는 말을 덧붙이게 돼요. 누군가와 나누는 일은 정말 행복한 일거든요.”

얼마 전에는 “주는 행복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라는 말을 들었다. 이재근 형제가 수년 동안 후원한 학생이 한 말이다. 이재근 형제의 사정이 넉넉해서 한 행동이 아니다. 받은 사랑을 주변에 나누는 것뿐이다. 이재근 형제에게 도움을 받은 그 학생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고 있다.

“추운 겨울에 혼자 앉아 계시는 노점상 할머니를 보는데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줘”라는 재근이 형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큰 도움은 아니지만 그 할머니의 물건을 다 팔아드렸어요.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형, 주는 행복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더 섬기고, 더 사랑하는 비전

이재근 형제에게는 비전이 있다. 이웃들을 더 섬기고,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자가 되는 꿈을 꾸고 있다. 이재근 형제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다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휴학 중인데 지난해 같은 과 동기들과 보육원 봉사 활동을 기획하게 됐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는 없지만 봉사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그 보육원

에 있는 봉사자들과 아이들의 밝은 미소가 이재근 형제를 더 행복하게 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기획할 수는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양재 온누리교회 허브공동체는 이재근 형제의 비전을 응원하며 늘 곁에 있어준다. 이재근 형제와 함께 동역하고 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블레스 행사에서 성극을 했는데 저도 참여했어요. 루돌프 역할로요.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허브공동체가 저와 함께 해주니 가능해지더라고요. 몸이 불편한 제가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용기도 생기고요. 허브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공동체인 것 같아요.”

이재근 형제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사람들은 말을 안 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말을 해야만 마음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라고 한마디 건네는 게 나눔의 시작이 될 거예요.”

이재근 형제가 경험한 사랑의 일화들이 담긴 에세이 〈사랑 받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이번 달 세상에 나온다. 그 책을 읽으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누며 이재근 형제를 떠올리면 정말 좋겠다.

3.1운동 100주년을 보내며 우리가 꼭 봐야 할 영화와 방송

영화 ‘항거: 유관순 이야기’

유관순 열사의 옥중투쟁 그 마지막 1년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항거: 유관순 이야기’. CGNTV가 준비한 3.1운동 100주년 특집 프로그램 ‘낮은 곳에서 피는 봄’과 ‘나는야 주의 어린이’.



3.1운동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
CGNTV 3.1운동 100주년 특집 프로그램

CGNTV에서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믿음의 선조들을 조명하는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다큐, 세미나, 특강, 토크쇼, 어린이)을 제작했다.

특집 다큐멘터리 ‘낮은 곳에서 피는 봄’은 작고 연약했던 여인들이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투쟁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담았다. 꼭 100년 전,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일제와 용감하게 맞서 싸웠던 믿음의 여인들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이다. 오는 3월 31일(주일) 오전 10시 30분 방송된다.

특집 세미나 ‘복음으로 씌여진 역사-3.1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3.1운동의 의미와 복음의 역사를 되짚어본다. 평택대학교 권평 교수가 강의한다. 이번 세미나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3.1운동 속에 담겨 있는 기독교의 영향력과 복음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파되어 왔는지 배울 수 있다. 내일(3월 4일)과 3월 11일(월) 오후 7시 50분 방송된다.

맞춤특강 ‘나침반’에서는 ‘3.1운동과 기독교’를 주제로 역사학자 이덕주 교수가 강의한다. 3.1운동 당시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애국심과 3.1운동이 일어난 정황,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사건들을 풀어놓는다. 또한 믿음의 선조들이 피와 눈물로 이뤄낸 값진 독립을 되새기며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써나갈 할 새로운 100년의 역사에 대해서도 고찰해본다. 3월 5일과 12일 오전 8시 방송된다.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에서는 <3.1운동과 기독교>를 집필한 함승수 교수(숭실대,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사무국장)가 출연한다. <3.1운동과 기독교> 집필과 그 뒷이야기,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3월 24일(주일) 오후 6시 20분 방송된다.

CGNTV 어린이 종합프로그램 ‘나는야 주의 어린이’에서는 화성 제암교회와 수촌교회 등 민족독립운동과 관련된 교회로 역사 여행을 떠난다. 3월 9일(토) 오후 12시 방송된다.

문의: CGNTV 02-796-9800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의 시작이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의 뿌리를 ‘3.1운동’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가 된 3.1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0년째 되는 아주 뜻 깊은 해다. 이 특별한 날을 보내며 우리가 꼭 보고 기억해야 할 영화가 있다. ‘항거: 유관순 이야기’다.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 재학 시절 1919년 3.1운동에 가담했다. 4월 1일 고향 천안 아우내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일제의 잔혹한 진압 현장에서 부모를 잃고, 자신과 오빠는 감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했다. 그 고문 후유증으로 회복되지 못한 꽃다운 나이 열여덟에 순국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유관순 열사의 옥중투쟁

영화 ‘항거: 유관순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은 유관순 열사의 옥중투쟁 이야기를 그렸다. 감옥에 갇혀서도 독립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뽐내했던 유관순 열사와 동료들의 외침을 고스란히 재현했다. 그동안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몇 편 있었지만 옥중에서 투쟁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작품은 이

영화가 처음이다.

이 영화 주인공 유관순 열사 역은 배우 고아성이 맡았다. 수원에서 기생 30여 명을 이끌고 만세운동을 주도한 의기(義妓) 김항화 역은 배우 김새벽, 개성 만세운동의 주역이자 유관순 열사의 이화학당 선배 권애라 역은 배우 김예은이 맡았다. 친일파 일본 경찰로 유관순 열사를 잔혹하게 고문하는 니시다 역은 배우 류경수가 열연했다.

영화 ‘항거: 유관순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다.

1920년 3월 1일, 3.1만세운동 1주년이 되자 서대문형무소에서 또 다시 만세삼창운동이 일어난다.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떼땃하게 외쳐라!”

서대문형무소 여옥사(女獄舍) 8호실. 세 평 못 되는 비좁은 옥사에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25명의 여성들이 앓을 자리가 없어 뻘뻘이 선채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유관순 열사의 소름 돋는 한마디로 시작된 이 외침은 대대적인 옥중 만세운동으로 번져나갔다. 형무소 담장을 뛰어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그 중심에 유관순 열사가 있었다.

이 사건으로 유관순 열사는 더 지독한 고문을 당했다. 방광이 파열되기까지 했는데 잔혹한 일제는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 결국

유관순 열사는 1920년 9월 28일 좁고 차디찬 감옥에서 순국했다.

영화 ‘항거: 유관순 이야기’에서는 1919년 3.1만세운동을 펼치는 장면은 컬러로, 유관순 열사가 옥중에 갇힌 1년은 흑백으로 표현했다. 그럼에도 유관순 열사를 연기한 배우 고아성의 단단한 눈빛이 컬러 화면보다 선명하고 날카롭게 빛나는 것이 인상적이다.

배우 고아성은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모습 촬영을 앞두고 닥새 동안 금식하기도 했다”면서 “매일 기도하듯 연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나라 잃은 상황이 아니었다면 평범하고 당차게 학교생활을 했을 소녀 유관순이 보여준 가슴 절절한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다.

CGNTV 3.1운동 100주년 특집 프로그램

프로그램	방영 일시
복음으로 씌여진 역사-3.1운동	4일, 11일(월) 오후 7시 50분
맞춤특강 나침반	5일, 12일(화) 오전 8시
나는야 주의 어린이	9일(토) 낮 12시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24일(주일) 오후 6시 20분
[특집 다큐멘터리] 낮은 곳에서 피는 봄	31일(주일) 오전 10시 30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속삭임 한마디’를 듣는 경청(傾聽)



하혜숙 교수
(강동 온누리교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혹시 여러분 중에
입이 예쁘다고 생각
하는 분 손들어 보시
기 바랍니다. 자, 그
럼 다음으로 귀가 예
쁘다고 생각하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
니다.”

이 내용은 상담 수
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가장 먼
저 하는 질문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예쁜 입을 가진 사람이 있고,
예쁜 귀를 가진 사람도 있다. 사람들은 입이
예쁜 사람을 좋아한다. 다시 말해서 언변이 좋
은 사람을 칭찬한다. “어쩔 저렇게 말을 잘 할
까? 나도 저렇게 말을 잘하면 참 좋겠다”며 부
러워하기도 한다.

나 또한 마찬가지로 상담을 공부하면서 무
슨 말을 어떻게 해야 내담자에게 좋은 상담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더랬다. 초보 상담자일
때는 내담자가 한참동안 고민을 털어놓고 있
노라면 ‘내담자 말이 끝나고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상담
을 하는 걸까?’ 하고 고심했다. 어쩌다 좋은 해
결책을 내놓거나 멋진 말을 하고나면 스스로
대견해하고 상담자로서 자질이 있는 것 같다
고 뿌듯해했다.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기도 했다. 좋은 해결책도
보이지 않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서 적
절한 말을 해주지 못할 때면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내담자가 나를 무능한 상담자로 보겠
지’ 하며 낙담하기도 했다. 상담자로서 말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담
자들은 입이 예쁜 상담자를 원할 거라고 생각
했다. 그런데 상담을 공부하면서 상담자가 어
떤 말을 얼마나 잘 하느냐보다, 내담자의 말을
얼마나 잘 들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을 깨닫게 되었다. 내담자들은 입이 예쁜 상담
자보다 귀가 예쁜 상담자를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지만 정작 예쁜 귀를 가진 사람 곁에 있
고 싶어 한다.

경청(傾聽)의 의미 ‘세 번째의 귀’로 듣는 것

‘예쁜 귀’라는 것은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귀가 있어도 정작 듣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가정의 저
녁시간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자. 아내는 하
루 종일 집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서 남편과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신문을 보는 남편에게 다가가
얘기 좀 하자고 말을 건넨다. 그러면 남편은
신문을 보면서 말을 해보라고 대답한다. 아내



가 얘기를 풀어놓기 시작하지만 남편은 계속
신문을 보고 있다. 결국 아내는 남편에게 “여
보, 내 말 좀 들어봐요”라고 말하고, 남편은 “
다 듣고 있으니깐 그냥 말해”라고 대답한다.
물론 우리의 감각기관이 독립적으로 형성되
어 있기 때문에 남편은 눈으로는 신문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귀로는 아내의 말을 듣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자신
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 섭섭해서
더 이상 말할 기분이 나지 않는다. 이처럼 일
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상담에서 가장 강조
하는 것을 한 가지 꼽으라면 아마도 ‘경청(傾
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청은 한마디로 내담자의 말에 귀를 기울
이는 것이다. 경(傾, 기울일 경)은 그 사람을 향
하는 것을 뜻한다. 경청에는 신체적으로 내담
자를 향하는 주의집중행동까지 포함되어 있
는 것이다. 앞선 예에서 이야기를 듣는 남편의
태도에 아내가 불편함을 느낀 것은 주의집중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聽, 들을 청)이라는 글자는 耳(귀 이), 目
(눈 목), 心(마음 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풀이
하자면 들을 ‘청’이라는 한 글자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공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
야기를 경청한다는 것은 주의집중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몸을 기울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눈을 맞추어
바라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마
음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처럼 경청은 신체
적으로 내담자를 향하는 주의집중과 함께 내
담자의 언어적 메시지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메시지까지, 그리고 명확한 메시지뿐만 아니

라 불명확한 메시지도 포착하고 이해하는 것
을 말한다. 그래서 경청하기를 ‘세 번째의 귀
(third ear)로 듣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한
다. 그런데 사람의 귀는 두 개인데 세 번째 귀
는 어디에 있을까? 세 번째 귀는 마음에 있다!
어느 변호사가 강연 중에 하던 말이 기억난
다. 처음 변호사가 되었을 때는 변호사라는 사
람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무기를 장
착하고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사자와 호랑이
와 맞서 열심히 싸워야 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는 것이다. 냉혹한 승부의 세계에서 승부사나
검투사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우연히 상대편 고소인의 말을 경청함
으로써 사건이 예상치 않게 잘 해결되는 경험
을 하면서 변호사는 검투사가 아니라 동행자
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진정
한 변호사는 갑자기 휘말린 사건으로 감싸인
동굴에 갇힌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
주는 안내인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그 동굴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있기에 함께 도와가며 그
동굴을 지나가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말로 하면 귀로 듣고, 마음으로 얘기하면
마음으로 듣는다.”

귀를 누구를 향해 열어둘 것인가?

지금까지 경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경청의 귀를 누
구를 향해 열어둘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하나
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

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요 10:27).

대부분 하나님의 목소리는 소리침이 아니라
나지막한 속삭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또한 그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
한 소리가 있는지라”(왕상 19:12).

이처럼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
기에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
는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
의 음성을 들을 때 사무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
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삼
상 3:10).

흔히 믿음이 커져가는 것을 하나님과의 친
밀함이 깊어져가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
버지로 가깝게 느끼게 되고, 그분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관계를 말한다. 우리는 나
를 향한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기를 원한다. 비
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때 그 세미한 음성은 내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변혁이 될 것이
다. 그 속삭임을 듣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임
하게 된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영에 감
동으로 울려 퍼진다. 속삭임 한 번만으로도 모
든 것이 변하게 된다. 그 한 번의 작은 음성만
으로도 큰 사명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게 된
다.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솟아난다.

그분의 음성을 매일 매순간 들을 수 있다면
바람 한 점에도, 피아노 건반의 그 울림 안에
서도, 찬양의 목소리 안에서, 지는 노을과
구름 빛 안에서, 주님 안에 함께 하는 사람
들의 마주 잡은 손과 눈빛에서도 주님의 소리
를 들을 수 있다면...

하지만 다른 소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다. 주변의 소리, 두려
움의 소리, 불신의 소리, 낙담과 절망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
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절망에 빠져서 굴 속으
로 들어간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만 어두운 곳에서 나오라. 비탄, 눈물, 낙담,
절망에서 나오라”고 속삭이신다. 하나님은 우
리가 어두운 곳에서 나오기를 원하신다. 수렁
에서 우리를 건지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삭임
이다. 지금 삶의 폭풍우와 지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속삭임 한마디’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 사무엘의 귀를 달라고 기도하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난 2월 26일 개강한 장로아카데미에서 이재훈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장로들의 학습공동체 ‘장로아카데미’ 개강

5월 21일까지 오후 7시 서빙고 순형홀

온누리교회 장로들의 학습공동체 ‘장로아카데미’가 지난달 26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개강했다. 이번 장로아카데미는 오는 5월 21일까지 13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서빙고 순형홀에서 진행된다. 총 35명의 장로들이 등록해 친교를 나누고 리더십을 함양한다.

장로아카데미 개강식은 이재훈 담임목사 주제강의, 장로 아카데미 커리큘럼 소개, 참가자 소개, 짝기도 및 조별 친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재훈 목사는 ‘온누리교회 비전 및 목회철학’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장로아카데미를 통해 교회의 미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며 권면했다.

홍성호 장로(장로아카데미 대표장로)는 “장로아카데미를 통해서 장로님들의 영적 교제가 깊어지고,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시작된 장로아카데미

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장로들의 영적 성숙과 리더십 개발을 돕는 학습공동체이다. ‘Acts29와 온누리선교’, ‘장로의 영성과 리더십’, ‘일상생활의 신학과 영성’, ‘바람직한 가정과 장로’, ‘관계와 소통’, ‘다음세대의 이해와 교회’, ‘과학기술과 사회변화’, ‘한국교회사와 장로교회’, ‘고령사회와 시니어사역’ 등을 학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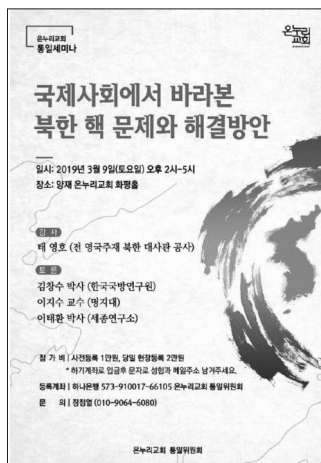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국제사회에서 바라본 북한 핵 문제와 해결방안’

통일세미나, 3월 9일 오후 2시 양재 화평홀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가 ‘국제사회에서 바라본 북한 핵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통일세미나를 개최한다. 3월 9일 오후 2시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북한 핵보유 전략’, ‘북한, 러시아, 중국에서 생각하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이어진다.

1부에서는 영국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를 역임한 태영호 전 공사가 북한 핵 보유 전략을 발표하고, 2부에서는 김창수 박사(한국국방연구원), 이태환 박사(세종연구소), 이지수 교수(명지대)가 국제적 시각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토의한다. 참가비는 사전등록 1만 원, 당일등록 2만 원이다. 문의: 010-9064-6080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 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 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 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 명	공동체
1133881	문주영	SNS	1133907	이찬미	수원 SEED	1133933	도창현	허브	1133962	최호용	S브릿지
1133882	조혜진	SNS	1133908	김미희	수원 SEED	1133934	이지혜	신용산	1133965	신계영	수원 동누리
1133883	성현빈	SNS	1133909	한영진	서초C	1133935	이승욱	여호수아	1133966	윤소은	갈렙
1133884	권지현	SNS	1133910	김형래	도곡	1133936	김영세	여호수아	1133968	이상원	도곡
1133885	김다래	SNS	1133911	최근영	수원 SEED	1133937	송인정	여호수아	1133969	최보용	S브릿지
1133886	박규봉	SNS	1133912	이민영	수원 SEED	1133938	양소라	여호수아	1133970	오창욱	SNS
1133887	황수영	SNS	1133913	이백행	마포	1133939	이승운	여호수아	1133971	나용운	SNS
1133888	김반비	SNS	1133914	오상현	대청공동체	1133940	최원진	여호수아	1133972	장한별	SNS
1133889	이가희	SNS	1133915	이희진	송파A	1133941	구수민	여호수아	1133973	박수연	SNS
1133890	정은은	SNS	1133916	피정민	양천	1133942	구수담	여호수아	1133974	임종서	SNS
1133891	이민재	SNS	1133917	김영숙	부천 화평	1133943	이민규	여호수아	1133975	김광진	SNS
1133892	서정희	SNS	1133918	우순환	부천 소망	1133944	정수경	여호수아	1133976	유 호	SNS
1133893	채지혜	SNS	1133919	서진자	부천 믿음	1133945	박진호	여호수아	1133977	황순범	SNS
1133894	홍소형	SNS	1133920	성정욱	중종로	1133946	진호경	여호수아	1133978	정수아	SNS
1133895	성혜란	대전 O2	1133921	이광표	-	1133947	양송아	여호수아	1133979	이은옥	SNS
1133896	이민희	대전 O2	1133922	김순미	경기A	1133948	나희경	여호수아	1133980	송성은	SNS
1133897	정옥경	대전 O2	1133923	장은지	J1	1133949	강아름	여호수아	1133981	박미정	SNS
1133898	장대식	양지 서누리	1133924	박지현	강남A	1133950	김영주	부천 화평	1133982	주 철	SNS
1133899	인찬 소	인천 소망	1133925	선명영	경기A	1133951	강재영	부천 화평	1133983	최준영	SNS
1133900	홍태순	부천 소망	1133926	김민정	서초D	1133952	원현정	허브	1133984	박지원	SNS
1133901	윤예림	수원 SEED	1133927	임은혜	인천 소망	1133953	유혜리	허브	1133985	신의정	SNS
1133902	정은혜	인천Web	1133928	김동수	분당A	1133954	맹호섭	성동광진	1133986	안진영	SNS
1133903	민강준	수원 SEED	1133929	이승희	강동파라다이스	1133955	문명호	허브	1133987	임찬숙	SNS
1133904	전은형	인천 믿음	1133930	전예리	수원 서누리	1133956	김예은	S브릿지	1133988	주광채	SNS
1133905	김영일	동작	1133931	조현철	대전 O2	1133957	원오연	남양주C			
1133906	임지섭	수원 SEED	1133932	신단비	양재	1133958	유선민	수원 서누리			

NGO 더멋진세상 ‘유엔 NGO 포럼’ 참석

지속가능한 국제개발을 위한 전략 논의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사회개발위원회 NGO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국제개발을 위한 전략, 유엔 산하기관과의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NGO 더멋진세상은 UNHCR, UNICEF, WFP 등 유엔 산하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우간다 남수단 난민, 어린이 교육, 식량보급 등의 사역에 대한 협의를 했다.

김광동 장로(NGO 더멋진세상 대표)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온전한 선교가 NGO 더멋진세상의 사역을 통해 열방에서 더욱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남양주 토요문화교실 개강

남양주 온누리교회 ‘토요문화교실’이 개강한다. 3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남양주 온누리교회 소망홀과 온유홀에서 진행된다. 토요문화교실에서는 다문화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댄스, 한국어, 미술, 합창 등의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남양주 토요문화교실 미술 교사와 봉사자를 급하게 모집하고 있다.

문의: 010-3937-3927

와이미션 참가자 모집

‘온누리선교학교 와이미션(이하 와이미션)’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빙고 와이미션은 3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콘서트홀, 양재 와이미션 목요반은 3월 14일부터 5월 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드림홀, 양재 와이미션 토요반은 3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50분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문의: 서빙고 010-9663-3292

양재 목요반 010-5528-4616

양재 토요반 010-6340-2427

안산M센터, ‘아랍인들을 위한 쉼터’ 운영

안산M센터 아랍어예배가 지난 1월부터 ‘아랍인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안산시 단원구에 자리한 아랍인을 위한 쉼터에서는 전도, 양육, 금

활사역 등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기, 에어컨, 식기구, 책상, 서랍 등을 후원해줄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010-3767-9050

창조신앙스쿨 3월 10일 개강

창조신앙스쿨이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5주 동안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홍보관에서 진행된다.

‘창조신앙은 무엇인가?’, ‘기원의 문제 및 진화론 바로알기’, ‘노아홍수 사건과 화석과 지층’,

‘지구와 우주’, ‘패러다임과 영적 전쟁’을 주제로 이은일 장로(고려대 의대 교수), 강영재 장로(연세대 겸임교수), 하주현 집사(경희대 의대 교수) 등이 강의한다.

문의: 010-7292-2349

두란노바이블칼리지, ‘기도학교’ 세미나

두란노바이블칼리지 ‘기도학교’ 세미나가 3월 8일부터 4월 26일까지 8주 동안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김현미 목사(GIM 대표)가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왜 기도하는 걸까?’, ‘성경적

음성듣기’,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 기도란?’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기를 원하거나 기도하고 싶지만 연속성이 없는 성도가 대상이다.

문의: 02-2078-3456

■ 비전통독 수료 간증



/ 호정은 성도(이촌공동체)

비전통독 1기를 수료하고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당시만 해도 매일 혼자 성경 읽기가 가능할 것 같았다. 그러나 바쁜 일정 속에서 조금씩 우선순위가 밀려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비전통독 1기 때 함께 한 사람들과 긴 시간도 기쁘게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났다. 그래서 비전통독 4기에 다시 참여했다.

매일 조원들과 서로 격려하면서 성경 읽는 것이 삶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사실 나는 기도 중에 “아바 아버지”라는 말이 낯설고 쑥스러웠다. 그러나 이번 비전통독 4기를 수료 하면서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내가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따뜻한 기분이 들었다. 또 교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말씀을 더 깊게 나눌 수 있게 됐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도 새로 깨닫는 점이 참 많았다.

말씀이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겨났다. 첫 번째는 감사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동안 내가 파지 않은 우물 을 은혜로 받고 있었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

“나는 죽고 예수 사셨네!”

를 은혜로 먹으며 살아왔음을 발견했다. 모든 것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형제자매, 이웃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는 순종이다. 여태껏 나는 내 뜻대로 정해놓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했다. 그러나 이제는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려 하고 있다. 비록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 뜻에 따르려고 작은 발걸음을 떼고 있는 중이다. 세 번째는 버럭 성질내는 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자제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이 지속되려면 방심해서는 안 된다. 비전통독 1기가 끝날 무렵 내 자신이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했었는데 방심하는 순간 내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말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살 수 없다.

“나는 죽고 예수 사셨네. 천국 용사 파이팅!”

비전통독 모집
일정: 3월 6일부터 16주 매주 수 오후 12시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문의: 010-9041-5538

■ 아름다운동행 ‘커플링’ 수료 간증



/ 김경환 장로(염창중앙교회)

우리 부부는 청년 시절부터 내적치유와 제자훈련, 전도폭발, 두란노아버지학교, 영아부 교육 등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인지 아름다운동행 ‘커플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을 땐 큰 기대보다는 동료 장로님들과 함께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아름다운동행 커플링 과정에 참여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고, 알고, 느꼈다. 섬겨주시는 부부 코치님들의 헌신과 함께 조원들과의 깊이 있는 나눔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간단한 검사를 통해 그동안 내가 알았던 배우자에 대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확인할 때 놀랍고 새로웠다. 작은 일을 도와줄 때 감동받고, 작은 표현에 기뻐하는 아내의 모습을 새로이 알게 되었다. 나 또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권위의식과 내 안에 내재된 원가족의 아픔, 아직도 잠재된 유교적 문화를 당연시 해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가슴으로 알아가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돼 감사할 뿐이다. 조원들의 나눔 속에서도 너무 많은 감동을 받고 공감을 배웠다.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

아름다운동행 커플링을 통해 우리 부부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인생의 전반전을 회사 일과 교회 사역하느라 앞만 보며 달려왔다.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부부 연합에 둘 것이다.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것이다.

온누리교회 아름다운동행 커플링 프로그램에서 보고 깨달은 것들을 잊지 않고 본 교회로 돌아가 지체들을 섬기는데 사용할 것이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그리며 행복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할 것이다. 타교회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우리를 섬겨주신 아름다운동행 커플링 프로그램의 모든 부부 코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부 코치님들의 섬김을 본받아 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더욱 잘 섬길 것이다. 아내와도 더욱 아름답게 동행하고 싶다.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해본다.

아름다운동행 ‘커플링’
일정: 3월 9일부터(8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서빙고 비전홀
문의: 010-9041-5538

■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스태프 간증



/ 김상범 총무(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얼어붙은 부부관계를 녹인다

가정은 새 힘을 충전하는 대지(大地)와 같은 곳이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정서, 성품, 인격, 가치관 등을 형성한다. 한 인간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가정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현실은 매우 위태롭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이혼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혼혼, 비혼, 동성애 등 가족 해체 현상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의 행복지수도 최하위다. ‘어린이 화병’, ‘소아 우울증’ 등 이전에 없던 새로운 병들이 우리 사회에 등장하고 있다. 마음과 정신이 병드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병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을 ‘역기능 가정’으로 꼽는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불행한 결혼생활을 보면서 생겨난 병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절벽 밑에 응급차를 대기시킬 것이 아니라 절벽 위에 방호벽을 만드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가정의 해체는 청소년 문제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한국 가정의 위기 속에서 온누리교회 가정사역본부의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가 가정문제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만큼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는 훌륭한 가족회복프로그램이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는 위기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성경적 가정제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다. 수많은 수료자들이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를 통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내의 소망을 알게 되었고, 잊고 있었던 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울고 웃으며 얼어붙었던 부부관계를 녹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 9일부터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122기가 진행된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회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한다.

문의: 010-5471-0854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홍신애 선교사(동아시아 A국)

블레싱 아웃리치에서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눅 10:27).

주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살롬의 인사를 전합니다. 동아시아 A국을 섬기면서 벌써 두 번째 겨울을 보냈습니다.

가난한 A국 사람들에게 겨울은 가장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며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자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기 위해 동역하는 목사님이 계시는 고아원으로 ‘블레싱 아웃리치’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고아원은 A도시의 빈민가가 가까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의 집을 주님께 헌납하며 세운 곳입니다. 이 고아원에는 3세부터 8세까지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고, 목사님을 포함한 8명의 교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고아원은 작은 방 하나와 거실, 간이부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이 전부입니다. 화장실이 실내에 있지 않아서 문 옆에 작

은 휴대용 유아변기를 몇 개 놓아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의 표정은 너무나 밝았습니다. 아이들은 식사시간이 되면 교사의 말 한마디에 작은상에 모여 앉아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씩씩하고 즐겁게 식사를 먹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에 낙심하지 않고 더욱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삶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학교 학생들은 블레싱 아웃리치를 위해 지난 두 달 동안 다양한 선물과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고아원에서 하루를 머물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에는 고아원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지창조 드라마와 어린이 예배율동, 장기자랑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학교 블레싱 아웃리치를 통해 지체되었던 고아원 선생님들과 외로웠던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큰 사랑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로칼럼

송파B공동체를 세우며



김철주 대표장로
(송파B공동체)

송파공동체 리더십들이 서울시 송파구 동부지역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곳에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송파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2019년 새로운 공동체를 서울시 송파구 동부지역에 신설했다. 기존에 있던 송파공동체가 송파A공동체가 되었고, 새롭게 만들어진 공동체를 송파B공동체로 명명했다.

송파B공동체가 송파 동부지역을 잘 섬기는 ‘따뜻하고 활기찬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한다. 송파구 동부지역에는 동부 법조타운과 위례 신도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 특히 위례 신도시에는 앞으로 11만 명 이상이 입주할 예정이다. 위례 신도시는 지역상 송파구, 분당시, 하남시 등 3개 지역과 맞닿아 있다. 위례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송파B공동체로 통합한다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송파B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한 확신을 갖게 됐다. 그 확신은 하나님께서 송파B공동체에게 송파구 동부지역을 맡기셨다는 것이다. 송파B공동체를 통해서 송파구 동부지역이 하나님의 땅으로 세워질 것이라 믿는다.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논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네 발로 밟는 곳마다 네게 줄 것이다’”(수 1:1-3).

송파B공동체에는 바울다락방, 모세다락방, 느헤미야다락방, 여호수아다락방 등 4개 다락방이 있다. 송파B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각 다락방이 세워진 목적을 깊이 묵상하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실천하기를 바란다.

송파B공동체가 지난 2월 23일 진행된 리더십수련회에서 새 마음과 새 각오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이루겠다고 결단했다. 올해 송파B공동체가 중점적으로 하려는 몇 가지 사역들이 있다. 첫째, 송파B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서로를 깊이 사랑해야 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요 13:35).

둘째, 송파B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 한 몸을 이루는 삶은 서로의 것을 나누고 통용하는 삶이다. 송파B공동체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 되기를 더욱 힘써야 한다.

셋째,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 안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사역’, ‘새가족 순배치 사역’, ‘3지역(서울시 송파구, 분당시, 하남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보살피는 일’ 등에 더욱 헌신해야 한다. 앞으로 송파B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권사칼럼

순장님들을 위한 창조과학탐사



이규영 권사
(분당B공동체)

지난 2월 23일 분당B공동체 리더십수련회가 개최됐다. 이번 리더십수련회에서는 순장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동체의 중심이 순이다 보니 순장님들은 많은 부분에서 헌신하고 계신다. 순장 성경공부, 순예배 인도, 심방, 순원들을 위한 기도 등 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다. 또 공동체의 손발이 되어 안내, 주차, 예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분당B공동체는 항상 수고하고 애쓰시는 순장님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 힘을 북돋아 드리기 위해 ‘순장님들을 위한 창조과학탐사’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큰 기쁨과 선물은 없다. 창조과학탐사는 하나님의 창조역사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만나다 더 없이 좋은 방법이다.

순장수련회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잘 보여주는 유적지 두 곳을 돌아보는 일정이었다. 탐사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유적지를 확인해 보는 것과 오고가는 버스 안에서 창조과학 사역본부에서 오신 두 분의 강사님으로부터 강의 듣는 것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탐사지역은 강원도 삼척시의 ‘환선굴’이었다. 그곳에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엄청난 양의 물이 일시에 빠져나가면서 형성된 거대한 아치형태의 굴, 물이 뚫고 나온 커다란 구멍들, 쌓여진 퇴적물 등이 남아 있었다. 두 번째 탐사지역인 태백시의 ‘통리계곡’은 환선굴과는 다른 퇴적물이 두꺼운 층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쌓인 것이 아니라, 급격한 지각변동에 의해 이루어졌다. 노아의 홍수 사건의 증거들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다.

강사님들의 강의 중에서 가장 기억남은 내용은 ‘피보나치 수열’에 관한 것이다. 거의 모든 꽃잎들은 3장, 5장, 8장, 13장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수학적인 법칙인 ‘피보나치 수열’에 따른 규칙성을 보여주고 있다. 백합과 붓꽃은 꽃잎이 3장, 채송화, 패랭이, 동백, 야생장미는 5장, 모란, 코스모스는 8장, 금불초와 금잔화는 13장이다. 이러한 법칙이 자연과 우주 곳곳에 숨어 있다고 한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놀랍고 또 놀라울 따름이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했지만, 자연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무지하였다. 창조의 신비를 알아챌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과 찬양도 온전히 드릴 수 없었다. 짧은 시간 동안의 배움만으로도 창밖의 산, 나무, 자연이 이리도 생동감 있게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들을 더 알게 된다면 어떨지 가슴이 벅차오른다.

리더십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순장님들과 함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순장님들은 순에 돌아가면 알게 된 것을 순식구들과 나누고 싶다고 하셨다. 그리고 창조과학에 관심을 더 갖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순장님도 계셨다. 어떤 순장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보면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었다고 고백하셨다. 토요일 새벽부터 더 자고 싶은 마음을 떨치고 일어나 가까이 참석하신 순장님들, 부족함이 많았지만 작은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신 성숙한 순장님들, 감기몸살 기운 때문에 좋지 않은 컨디션 가운데서도 함께 하기 위해 약을 싸와 수시로 드시며 모든 일정을 소화해 낸 순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앙에세이



변대섭 목사
(남양주 온누리교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성경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신 분으로 그려낸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속성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내가 주의 영광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에 잡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시 139:7-8).

특히 하나님 손길과 섭리를 설명할 때 ‘편재’ 혹은 ‘무소부재’라는 표현을 쓴다. 하나

님의 편재성과 무소부재를 생각한다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예배의 장소를 지정하시는 부분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느껴진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날 장소를 말씀하셨다.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거 위에 놓여 있는 두 그룹 사이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네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출 25:22).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한을 두시고 만남의 약속을 하신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가 바로 ‘성막’이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구조를 보여주셨다. 유한한 인간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 방법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구약의 제사에서 형식이 매우 강조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지정된 성막과 제사의 외형을 정확

성막은 지금도 살아있다

히 지켜야 했다. 또 그렇게 형식적 완성을 갖추면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생각했다.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제사의 본질이 잊혀져 갔고 형식만 보이는 것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두려움도 사라져 갔다. 그 결과 마음과 행실이 죄로 가득하게 되었고 형식적인 제사로 인해 하나님은 분노하셨다.

하나님과 만남이 형식적인 의미만을 가지면서 이스라엘은 심판의 역사를 자초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열려진 생명의 길을 인간은 그 완고함으로 스스로 닫아버렸다. 하지만 다시 반전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 이 휘장은 두께가 15cm가 넘는 매우 튼튼한 커튼인데, 휘장으로 분리된 지성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일 년에 한 차례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였다. 거룩하

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동시에 활짝 열린 것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몸을 찢으셨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영원한 길이 되셨다.

지난달 남양주 온누리교회 차세대 꿈이자라는땅 학생들과 성막의 모형을 복원한 곳에 다녀왔다. 학생들이 성막의 구조와 기구들을 배우고 체험하면서 구약의 제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했다. 더 나아가 지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시는지를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막은 출애굽 이후 광야시대를 보여주는 역사 속 기념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분을 만나는 방법이다. 성막의 구조는 성경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가 된다. 성경 속 성막의 원리가 성경 지식의 차원을 넘어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은혜로 역사하기를 소망한다. 성막은 지금도 살아있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모세의 기도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공물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물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마땅히 임할 진노가 면제되는 것이 공물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정 반대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공물이 풍성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가 있더라도, 마땅히 징벌 받아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공물을 구해야 합니다.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주여, 나를 공물로 여겨 주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야 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공물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정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물을 구할 희망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10절, 개역개정)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석가 켈센은 이 말씀을 “이것은 모세의 기도에 대한 초청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에 숨어있는 작은 희망의 틈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화가 나서 여러분에게 “나 말리지 말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 자체가 말려달라는 뜻입니다. 작은 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무런 계획을 말씀하시지 않고 실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공물을 베푸실 수 있는 작은 틈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공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물을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둘째,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구하며 호소했습니다.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십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12절).

모세의 기도가 더 깊어졌습니다. 백성들의 운명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기도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신의 소원이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왜 돌아오게 했습니까? 그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으로 인해 여러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으로써 그들에게 내 자신을 나타내 보였고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했다”(겔 20:9).

출애굽시키신 것,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시오”(시 23:3).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이 진멸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자녀, 민족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깃발을 높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품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서 귀를 기울입니다.

셋째,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13절).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의로우시기에 약속하신 것을 새로운 약속으로 바꾸셔도 의로우심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잡을 때 그 약속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셨습니까? 그들의 개인적인 위대함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일부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공물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라 할지라도, 역사에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라 할지라도 거둘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역사의 운명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운명은 믿는 이들의 기도에서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충분한 기도는 역사를 바꿉니다. 충분한 기도 속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 없는 행동은 역사에 휘말릴 뿐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마음을 접으셨습니다”(14절).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물, 영광,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기도에서 설득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가 우리를 통해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교 크리스천의 지혜로운 재정관리 ②



이주호 팀장
(결혼예비학교 재정강사)

“신용카드는 미래에 돈을 갚을 것을 약속하고 현재 수중에 없는 현금을 마그네틱 한 번 긁음으로 빌려서 쓰는 것이다.”

음식점에서 현금으로 음식 값을 지불하려던 순간 지갑을 집에 두고 와서 곤경에 처한 한 사업가가 신용카드를 개발했다고 한다. 그 이후 신용카드는 인류가 개발한 획기적인 발명품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감히 ‘신용카드는 최악의 발명품’이라고 말하고 싶다.

신용카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산에도 없는 무분별한 지출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쉽게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신용을 망가뜨리는 수단이 되어버렸는지 모른다. 어떤 이는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돈이 필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신용카드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미래를 내다보고 예비자금을 저축해두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진짜 필요할 때가 아니라도 안사도 될 것을 사거나 안 가도 될 여행을 가는 무분별한 소비습관을 만들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신용카드를 없애고 나면 모든 지출을 예산 범위 안에서 현금과 체크카드로 하게 된다. 지출을 조금 더 쉽게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서 지출할 때마다 반드시 필요한 지출인지 아니면 체면치레 하는 것인지 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하겠다.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 신용카드를 “선악과를 따먹으라”며 하

와를 유혹했던 뱀과 같이 아름다운 말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죄를 짓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존재이다.

가계부채 1,500조 시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할 때 대출을 활용한다. 대학생들은 학자금대출을, 직장인들은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 받아 그 돈으로 다시 투자(필자는 이런 경우를 ‘투기’라고 부르고 싶다)하는 이들도 있다. 주식담보대출 규모가 11조를 넘어섰다고 하니 가히 대출만 받으면 필요한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금융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어떤 재테크 전문가들은 종자돈이 없을 때는 대출을 받아 투자하고 그 수익금으로 대출을 갚고 남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지렛대 효과)’를 유도한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필자는 대출로 종자돈을 만들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한다. 투자해서 수익이 잘나면 행운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빚더미에 앉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정 관리에 있어서 1순위는 ‘부채상환’이다. 저축과 투자도 좋지만 일단 최대한 빨리 부채부터 갚을 것을 권한다. 특히 대출금이 얼마 되지 않는 단기부채부터 갚아나갈 것을 권한다. 심리적으로 부채가 하나씩 제거될 때마다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증세”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기존의 부채를 갚을 생각 없이 추가로 계속 빚을 지면서 재정 관리를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

바울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롬 13:8)고 했고, 잠언은 “빛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잠 22:7)면서 부채를 경고하고 있음을 명심하자.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루빨리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 재정적 평안함을 누리기를 소망한다.

지혜로운 지출과 부채 관리

Acts29

게시판

14 온누리신문

2019년 3월 3일(주일) | 제1235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분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타갈로그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교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1층 미션홀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개강: 3월 21일(목)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홀

하반기(8월~12월) 온누리교회 결혼

예배 예약안내

일시: 3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2층 시온홀

자격: 예비신랑, 신부 혹은 양가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이면 가

능(단 예비신랑, 신부는 등록 교인(타 교회

상관없음)이어야 함)

문의: 서빙고 최연희 간사(02-3215-3179)

양재 배현서 간사(02-570-7505)

월요어노인팅집회 섬김 모임

일정: 매주 월 오후 7시~10시

모집: 세션 1명, 방송 1명

문의: 박지영(010-9372-2909)

CMN 마하나임(A팀) 아웃리치 모임

일시: 7월 21일~27일

장소: 몽골 울란바토르 아가페기독교병원

문의: 김의석 팀장(010-3326-8058)

CMN 라파엘 치과 의사 봉사자 모집

일시: 매월 2, 3째주 오후 2시~5시

장소: 안산M센터(외국인 무료진료)

문의: 박귀홍 팀장(010-9990-2875)

남양주 온누리교회 토요 다문화공동

체 문화교실 교사 모집

모집: 다문화자녀 미술교사, 다문화자녀 합

창지도교사, 중국여성소 순장, 주방 음식준

비, 다문화탁아 케어교사

문의: 양옥진 선교사(010-3937-3927)

양재

0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쁨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Crow 5세~초등1(총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초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교: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 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

CGNTV 본격러브액션드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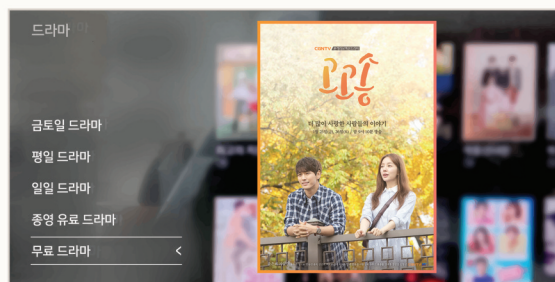
고고송

드라마 “고고송” 다시보기 서비스 런칭!

IPTV, YouTube, 네이버TV에서 만나보세요



KT IPTV VOD



* <올레TV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TV다시보기 > 드라마 > 무료 드라마
또는 검색창에서 “고고송” 검색

YouTube, 네이버TV

“CGNTV” 채널 검색



“CGNTV” 채널 구독



“고고송” 시청

*3월 5일(화) 오후 2시에 공개됩니다.